



지난 1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해피니스CC에서 열린 '제14기 광남일보 아카데미 원우회장배 골프대회'에 참석한 허승업 원우회장과 이송배 광남일보 사장 및 원우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경기 후 해피니스CC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시상식과 친목행사에는 대회 참가자뿐 아니라 골프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원우들까지 참석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광남일보 드림리더 14기, 필드에서 화합 다졌다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원우들이 푸른 필드에서 친목을 다지며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원우회장배 골프대회 및 친목행사가 지난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해피니스 컨트리클럽(CC)에서 열렸다. 원우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골프대회에는 허승업 원우회장과 박상봉 골프위원장, 이송배 광남일보 사장을 비롯한 원우들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온 우의를 더욱 돈독히 했다.

대회는 허 회장과 박 위원장, 김정옥 수석부회장, 이송배 사장의 시타로 막을 올렸다. 원우들은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 속에 회원제와 대중제 코스에서 18홀 신

페리오 방식으로 실력을 겨뤘다. 승부에 대한 부담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경기 후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친목행사에는 대회 참가자뿐 아니라 골프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원우들까지 70여명이 함께했다.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 기념품 전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행사장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골프를 치지 않은 원우 10여명은 오후 4시 골프장 인근 산림연구원에 모여 산책을 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서는 김안남 원우와 강선미 원우가 각각 남녀 신페리오 부문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차경봉 원우는 70타를 기록하며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

###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 원우회장배 골프대회 나주 해피니스CC서 열려…시상·행운권 추첨 등 허승업 원우회장 “회원 활발한 교류·성원에 감사”

자들에게는 트로피와 드라이버 등 푸짐한 부상이 주어졌다.

남녀 통기스트 부문에서는 모재완 원우가 270m, 양현미 원우가 190m를 기록하며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니어리스트 부문에서는 이강호 원우가 0.6m, 박아라미 원우가 0.8m의 기록으로 각각 남녀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대회 14위를 차지한 김세원 원우는 행운상의 주인공이 돼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행운권 추첨도 큰 호응을 얻었다. 원우들이 십시일반 기증한 백화점 상품권과 식당 이용권, 반상기 세트, 더치커피, 프리미엄 주류 세트, 영화 관람권, 고급 우산 등 다양한 경품이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또 원우회 발전과 대회 준비에 힘쓴 박상봉 골프위원장에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참석 회원들에게도 풍성한 기념품이

제공됐다.

허승업 원우회장은 “그동안 끈끈한 우의를 다져온 14기 원우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성원 덕분에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뜻깊은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모든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 이 같은 화합의 분위기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격주로 진행되는 아카데미 강의는 우수한 강사진과 알찬 내용으로 원우들의 만족도가 높고, 광남일보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원우회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상봉 골프위원장은 “50여명의 원우가 한자리에 모여 운동을 즐기고 친목을 다졌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골프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우정을 더욱 깊이 쌓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송배 광남일보 사장은 “14기 원우들은 아카데미 강의뿐 아니라 골프대회와 트레킹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인 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며 “원우들의 열정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원우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는 오는 22일 문달주 교수 강의, 11월 11~14일 일본 해외탐방, 19일 김광호 교수 강의, 12월 10일 수료식 및 음악회를 앞두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시의사회, 무등의림상 수상자 5명 선정

광주시의사회 무등의림상 운영위원회는 제36회 무등의림상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봉사상은 오영현 보라여성의원 원장, 공로상은 박유환 첨대박유환내과 원장이 받는다.

학술상은 김영철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조수형 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임준섭 광주기독병원 신경외과 부장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영현 원장은 아동복지시설 후원과 조손가정·미혼모 지원, 의대생 장학금 지원 등 꾸준히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봉사상을 수상했다. 고려인광주진료소와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서 진료봉사를 이어온 공로도 인정 받았다.



오영현 원장



박유환 원장



김영철 교수



조수형 교수



임준섭 부장

오영현 보라여성의원 원장, 지역사회 나눔 호평 ‘봉사상’ 공로상에 박유환 원장…학술상 김영철·조수형·임준섭

박유환 원장은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의료기관 지원단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에 기여한 점을 비롯해 캄보디아·네팔 광주진료소와 고려인광주진료소에서의 의료봉사, 장학금 후원 등을 펼치는 등 소외계층

지원에 힘써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영철 교수는 30년간 폐암을 중심으로 한 호흡기종양 분야의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국제학술지에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국적 제약사 주도 2·3상 임상시험에 참여해 폐암 치료법 개발

등에 기여한 점을 호평받아 학술상을 받았다.

조수형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 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장으로서 재난응급의료 교육·훈련과 연구를 수행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에 참여해 구급대원에 실시간 전문 의료지도를 제공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발전에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임준섭 부장은 뇌혈관질환과 신경외과 수술 분야의 연구·학술활동을 이어오며 뇌출혈과 뇌동맥류 파열 등 중증 응급질환을 진료하고 관련 학술단체에서의 활동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신경외과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힘쓴 점을 호평 받아 학술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무등의림상 시상식은 오는 25일 조선대부속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제32회 광주시의사회 날 행사에서 열린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 서구가 ‘제1회 광주전남통합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제’ 탁구 종목에서 스탠딩부와 휠체어부 정상을 모두 차지하며 뛰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 서구, 장애인생활체육 탁구 2개 부문 석권

스탠딩부 19개팀·휠체어부 11개팀 경쟁서 나란히 1위

전남광주 서구가 ‘제1회 광주전남통합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제’ 탁구 종목에서 스탠딩부와 휠체어부 정상을 모두 차지하며 뛰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서구 선수단은 이번 대회 탁구 어울림 종목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출전해 2개 부문을 모두 석권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19개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스탠딩부에서는 김민찬·문형진·정지원 조가 탄탄한 조직력과 뛰어난 팀워크를 앞세워 1위에 올랐다. 이어 11개팀

이 출전한 휠체어부에서도 현오봉·이준·진미덕 조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호흡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하나의 팀으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광주 서구 선수단은 두 부문에서 나란히 정상에 오르며 장애인생활체육의 경쟁력과 함께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보여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목포대서 ‘특 콘서트’

27일 ‘호의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꾼다’ 주제 강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이 목포대를 찾아 ‘호의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꾼다’ 주제로 ‘특 콘서트’를 연다.

18일 국립목포대학교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국립목포대 70주년기념관 정장목홀에서 ‘문형배 작가 초청 특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책을 통해 삶의 가치와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부산가정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현재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 ‘호의



에 대하여’에는 오랜 법조 생활과 일상에서의 경험, 독서를 통해 쌓아온 생각과 성찰을 담았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 강연에서 ‘호의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법조인으로 살아오며 마주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속 호의와 배려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개인의 작은 행동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탄소중립 시대, 남는 전기 활용 방법은

‘5회 과학스쿨’ 박찬호 교수, 21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토크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오는 21일 오후 7시 광주과학기술원 오토크관에서 ‘2026년도 제5회 과학스쿨’ 강연을 공동으로 연다.

이번 강연은 ‘버려지는 전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은?’을 주제로 GIST 화학과 및 에너지융합대학원 박찬호 교수를 초청해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기술을 살펴보고, 남는 전기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전기로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쉽고 흥미롭게 소개할 예정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이지만, 날씨와 환경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특히 발전량이 수요를 넘어설 경우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활용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



고 있다.

강연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시작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본다.

이어 남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과 촉매의 역할, 생산된 수소를 저장·활용하는 방법, 연료전지를 통해 수소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원리까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본다.

강연자인 박찬호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예일대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마스터와 삼성SDI 배터리연구소 상무를 거쳐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주 서구협의회는 최근 지역 청소년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 ‘삼계탕 100인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주 서구협의회 나눔 행사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주 서구협의회 회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주 서구협의회(회장 박병제)는 최근 지역 청소년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 회원사인 ‘최춘열 능이버섯삼계탕’ 최춘열 대표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나눔이 능이버섯백숙 급호점이 함께했다.

이날 준비한 삼계탕 100인분은 서구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과 재가요양센터를 통해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최 대표는 5년째 매년 상·하반기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최춘열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청소년들과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한 끼를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